

## 숨쉬는 포장필름으로 세계화

### 제2의 도약 위해 품질경쟁력 배가



정 희 국

(주)태방파텍 대표이사

숨쉬는 필름으로 농산물 포장용 분야를 이끌고 있는 (주)태방파텍(대표이사 정희국)은 필름 및 용기의 해외 진출 다각화를 통해 세계화를 꾀하고 있다.

‘식품 및 농산물 소포장기술 전문기업’을 모토로 환경친화(필름과 종이의 콤비네이션), 포장기계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및 신사업, 이업종 확대(제약, 전자 부품사업 등), 숨쉬는 장독대(가스투과성 특수포장) 등 신사업을 펼쳐 미국, 일본, 유럽, 태국, 싸이프러스 등 수출지역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신흥개발국에는 우리나라 성공모델 현지화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와 기술 집약을 꾀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해 품질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다.

태방파텍은 지난 1989년 8월 설립되어 농수산물, 식품용 필름 및 용기를 제조하고 투명창 필름 자동 부착기와 과일정량분배기 등 포장기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태방의 정 사장은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이공계 현장 엔지니어로 출발하여 제지 관련 국내 대기업 생산현장 및 연구소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인 기업으로 창업하면서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

사업초기에는 일반기계류 국내 영업을 하다가, 포장기계 수출입 영업을 전환하였고 자본재 성격인 포장기계 영업을 하다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 사업유지 아이템으로 포장재 필름이 적합하겠다고 생각해 다양한 제품의 포장필름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연포장 필름 및 용기를 제조하여 공급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포장업을 하면서 1인 창업으로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와 같이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일구어 냈다는 점과 나 혼자만이 아니라 80여명의 직원이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점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창업 이후 일반기계류 영업, 포장기계류 영업, 포장재 제조 등 3번 정도 사업의 변신을 해왔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점도 뿌듯하다고 한다.

그동안 포장재 관련 사업을 해오면서 각박한 경영환경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여러 분야의 선배 및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포장업을 하는 동종업계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과 따뜻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거래선경쟁으로부터 벗어나서 포장재질, 인쇄 및 가공기계, 제조기술 등 포장기술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가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포장

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패키징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공장 신축 및 이전으로 인한 자금의 압박 및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금융권으로부터 냉대와 핍박을 받았으나, 다행히 지금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공장 신축을 마무리할 수 있어 고비를 넘기면서 신규공장 건축시 자금 확보 에서는 정부나 관련단체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우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창업부터 현재까지 경영활동을 해보고 나니, 정말 경영은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 정 사장은 머리 하나부터 발끝까지, 제품 하나하나, 공장 구석구석까지 경영자뿐만 아니라, 전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챙겨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이왕 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으니 서로 믿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 박스 투명창 자동포장기

# TAE BANG PATEC

말했다. 그리고 연포장 필름 제조업은 각박한 경영환경으로 사장 이하 전 직원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누가 챙기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먼저 보는 사람이 스스로 챙겨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개인적으로는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는 등 편하게 여생을 지내고 싶으나 아직 일이

좋고, 일을 성취한 뒤에 얻는 뿌듯함으로 인해 사업을 더욱 확장해보고 싶다고 한다.

현재 100억원의 사업 규모가 1단계 기반구축이라고 본다면 신규사업, M&A 등을 통해 500억원으로 키우고 싶고 해외수출, 해외공장 플랜트 엔지니어링까지 사업을 늘려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회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창업 이후 지금까지 회사를 성장

시키기 위해 정말 직원들이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물론 사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때마다 직원들과 문제를 헤쳐 나올 수 있어서 지금까지 성장했으며 그 공은 모두 다 직원 여러분들의 것이라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사장인 나도 종업원의 한 사람으로 어깨를 같이 하고 회사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 태방파텍의 공장 전경

있고 현재 태방파텍도 직원 여러 분의 것이고,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성장의 열매를 적절히 나누어 갖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홍죽공장 신축, 매출 연간 100억원 달성 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좋은 회사,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는 결의도 보였다.

정말 저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 여러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루랄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멋져”라는 말이 너무 좋으며 이 말에 경영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도 이 말의 완성을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며 올해 2012년은 태방파텍으로서 중요한 도약의 한해이며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

할 것이다.

정 사장의 이러한 의지와 다짐은 사원에 대한 복지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원거리 사원 원룸 숙소 제공(침실,침구,인터넷 비용), 원거리 사원 출퇴근 편의 제공(카풀제), 체육시설(탁구대 2세트), 동호회 활동( 등산, 낚시, 바둑, 당구 등, 3개 이내 가입가능), 우수사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102억원 매출실적을 올린 태방은 올해에는 180억원 매출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전에 회사 및 공장이 분산되어 있었으나(본사 및 영업 : 의정부, 필름공장 : 양주 남면, 디자인 : 가락동) One stop packaging solution을 구축하기 위해(영업~디자인~인쇄~가공~출하에 이르는 일관 프로세스)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회사 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본사/영업 및 필름공장, 디자인).

영업전략으로는 필름은 고성품 비축생산 및 수주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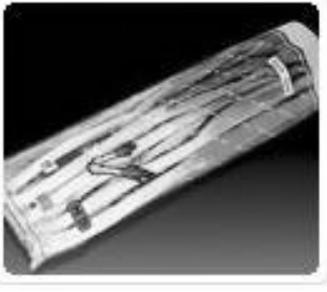


W-106 참외박스



W-105 자두박스

▲ 태방파텍의 농산물 포장제품



▲ 태방파텍의 투명창류 포장제



## TAE BANG PATEC

수출하 2가지 유형으로 기성품은 태방이 자체 디자인한 포장지를 대량 생산, 공급(수출위주)하고, 수주품은 거래선별 특화된 디자인 및 포장지 생산, 공급, 용기는 과일 및 야채 계절별 특화 공급, 가공식품별 디자인 특화 공급하고 있다.

수출은 품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 2011년 포장재를 수출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기타 해외 각국의 특성을 감안한 포장재의 수출을 공략할 계획이다. 내수는 1,000여개 거래선의 다양한 요구를 받



▲ 일본수출 물제품

영하여 수주~디자인~인쇄~합지~가공~출하에 이르는 일관 프로세스를 통해 고품질, 단납기에 공급한다는 전략 하에 접근하고 있다.

태방의 중장기 성장전략은 농산물 포장시장 창출에서 연포장 시장으로 진입하여 농수산물 신선포장부문 확고한 1위 자리를 달성하고 필름, 용기, 설비, 운영 노하우가 복합된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정착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글로벌 기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2단계 시작년도로 홍죽공장 본격 가동과 함께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기존 진출 국가에 대한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규 진출 국가를 적극 공략해 해외

수출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방파텍의 경쟁력은 다양한 형태, 다품종 소량의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에서 디자인 생산까지 원스톱 패키징시스템구축, 품질 보증, 디자인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품질관리체계 구축, 식품포장 필름 및 용기류를 동시에 생산 공급이 가능해 고객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품질을 기반으로 안전, 위생을 우선하는 글로벌 식품 및 포장분야의 선도적 제조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또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키 위해 디자인실을 운영하여 국제화 변화주도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신기술 개발과 특화된 제품으로 농산물 포장을 선도하고 있는 태방파텍의 세계화를 기대해 본다. ☞